

‘지원횟수 소진’ 난임부부, 추가 지원

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시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난소기능 저하로 난포속에 난자가 없이 비어 있는 ‘공란포’ 현상의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현재 30%보다 높은 80%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들이 제기해왔던 불만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횟수를 일부 사용한 난임부부는 신선배아(4회)·동결배아(3회)·인공수정(3회) 등 시술 보장횟수를 최대 2회까지 늘린다.

다만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회(신선배아는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예를들어 신선배아 기준 정부지원으로 3~4회를 사용했을 경우 내년엔 2회씩 추가된다. 3회 사용자는 잔여횟수가 3회, 4회 사용자는 2회로 각각 늘어난다.

신선배아 시술을 2회 받았다면 1회만 추가로 잔여횟수가 3회가 된다.

신선배아 시술 횟수가 3회 이상 남은 경우 보장 횟수는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은 만 45세 미만(여성)이다.

일부 난임부부들이 연령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만 45세에 임박해 시행된 난임부부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4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을 인센티브로 했다. 지원 대상자중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10월1일 당시 생년월일이 1972년 10월2일부터 1973년 4월1일(만 44세7개월~만 44세1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란포’ 문제도 이번엔 조치가 이뤄졌다.

흔히 35세이상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배란유도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을 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도 횟수 차감이 된다는 게 난

시술별 2~3회...대상연령 만 44세이하 유지 1972년 10월2일~1973년 4월1일 예외 적용

임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공란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게할 방침이다.

또 난임시술과 관련해 비급여 비용이 많아 건보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께 발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난임시술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난임시술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체외수정(시험관시술)과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1회당 최대 300만~500만원에 달하는 난임시술 비용 중 소득에

따라 100만~240만원을 보조해왔으나, 지난 10월부터 건강보험 제정에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가 해당된다.

제도시행 이후 일부 난임부부들이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45세이상 임신 성공률이 약 3% 수준으로 낮은 반면 유산율은 70% 수준이고, 어느 나라든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성공률도 문제지만 여성 건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아이스링크에서 요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호텔 아이스링크에서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톨루레코와 함께 아이스 요가 수업을 선보이고 있다.

전교조, 광주교육 ‘학교혁신 긍정·인사혁신 부정’

직선 2기 광주교육청의 교육혁신 기여도와 교사 교육활동 지원, 청렴도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은 긍정적인 반면 교권보호와 인사혁신, 업무감등 조정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전 광주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인 직선 2기 광주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광주지역 초·중·고·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800명(조합원·비조합원 포함)을 대상으로 광주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영역은 학교문화혁신, 교육여건 개선, 민주시민교육, 교육복지, 교육자치 등 5개 분야다.

가장 많은 긍정 응답을 받은 분

이는 학생인권신장,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 교육복지 우선사업 추진, 교육청 청렴도, 민주적 학교운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산 현장요구 반영, 학생중심 학교 공간 조성, 서열중심 평가 탈피, 부적응 학생 지원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분야는 교권보호, 교육청 인사혁신, 업무감등 조정, 담임교사 지원, 혁신학교 지정 확대, 수업혁신 기여도, 업무경감 정책, 진로·진학 교육정책, 생활교육 혁신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광주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데 동의했으나 신인적 정책이나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와 결과 중심 정책, 비민주적 관행, 지시와 공문평가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추진 과제로 교육개혁 과제 추진 및 평가협의회 구성, 교관센터 교육감 직속기관 격상, 학생자치 활성화, 교육복지 지원사업 체계화, 교육주체·시민사회 협치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진규 평가위원장은 “이번 평가의 중심 질문은 교사와 학교의 시선에서 광주교육청에 질문하고, 다시 교사의 시선으로 학교에 질문하자는 것이다”며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현장에 있는 교사의 목소리를 평가보고서에 담아낸 만큼 광주 교육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진정한 스포츠맨십” 미 女육상선수 화제

지난 10일 미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달러스 마라톤 대회. 결승선을 불과 얼마 안 남기고 여자 부문 선두를 달리던 캔들러 셸프가 탈진해 다리가 풀리면서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누가 보더라도 셸프가 남은 거리를 마저 뛰여 완주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였다.

그때 셸프의 뒤에서 따라오던 이리아나 루터먼이 그녀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격려하기 시작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18번째 생일을 맞는 17살의 루터먼은 그린힐 고교 마라톤 팀의 최종주자로 대회에 참가 중이었다. 루터먼은 그러나 혼자 집주해 기록을 단축하는 대신 비틀거리는 셸프를 격려하고 부추겨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지막 10m 정도는 사실상 루터먼이 셸프를 안다시피 해 결승선을 통과했다.

루터먼이 셸프를 도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미 SNS에서 순식간에 최고의 인기 동영상이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루터먼을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영웅이라고 추켜세웠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클릭하면서 이 영상은 11일(현지시간) 최고 인기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에 SNS에 소개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루터먼의 이름과 얼굴은 유명해졌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이던 루터먼은 하루 아침에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유명인사가 됐다. 결혼하고 싶다는 청혼까지 나왔다.

루터먼은 셸프를 도운 것은 거의 본능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났었다. 비틀거리는 셸프를 혼자 내버려두고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루터먼은 말했다. 동영상을 보면 루터먼이 쓰러지려는 셸프를 몇차례나 부추겨 일으켜 세워 마침내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셸프는 루터먼의 도움을 받아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녀와 가족들은 우승은 전적으로 루터먼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 셸프는 2시간53분58초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케이틀린 킨의 2시간56분38초보다 2분40초 앞서 우승했다.

이북부 시장에 차량돌진 시킨 20대 남 체포

이탈리아 북부의 손드리오 시내에서 9일(현지시간) 주말 크리스마스 시장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20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

이탈리아 전국지 라 레푸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미셸 보르도네(27)는 이날 토요일 아침을 몰고 손드리오 중심가의 보행 광장으로 돌진, 3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체포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는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르도네를 “다수에 대한 무차별 살인 미수”혐의와 경찰관 폭행, 체포 불응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르도네는 사건 후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다가 잡힌 뒤 잠시 입원했으며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행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성 한 명이 차에 치여 크리스마스 시장 일부에 마련된 스케이트장으로 날아가 부상당했으며 입원 초에는 중상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회복되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두 명의 남자도 경상에 그쳤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번 공격이 테러조직의 범죄라는 의심은 애초에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하마스거점 또 보복공격

이스라엘 군은 11일 밤(현지시간)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공중 폭격을 가한 지 몇시간 뒤에 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무사히 저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포는 이스라엘군의 아이언 돔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의해 요격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스라엘쪽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된 것이 없다.

이후 이스라엘 탱크 한대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 군기지를 향해 보복 포격에 나섰다. 군 당국은 말했다. 이 역시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다.

지난 8일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로켓포와 전폭기 폭격을 주고받으며 맹렬한 교전을 계속해왔다. 11일의 로켓포 공격은 이스라엘이 전담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내로 뚫어놓은 수백 미터의 지하 터널을 발견해 파괴했다고 발표한 뒤 하마스 쪽에서 ‘터널 파괴에 대한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이뤄졌다.

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